

한국디스플레이연구 조합 '95 정기총회 개최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이사장 : LG전자 구자홍 대표이사)은 지난 2월 28일 도원 회의실에서 삼성전관 등 회원사 28개사가 참석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9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동향 및 향후 발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산·학·연 간담회 개최, 제2회 LCD 기반 기술 세미나 개최, 해외 디스플레이 관련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기술교류에 적극 나서는 등 95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조사사업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는 공동기술수요조사와 LCD 기반기술 개발 과제에 선정된 총 30여개 과제를 공동개발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한 LCD 해외 표준화 자료

분석 및 대책 협의를 하는 한편 국제전기표준화위원회(IEC)에도 적극 참석키로 했다.

환경경영 5대 전략 추진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 배순훈)는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운동에 앞장서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경영추진전략」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 회사는 올해 환경경영을 목표로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 환경법 준수 및 환경관리기능 강화, 폐가전품, 폐포장재의 회수 및 처리활동 강화, 국제환경규제 대응체제 구축, 환경관련 사내 인식제고 및 대내외 홍보강화 등 5대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우는 이를위해 올해 1차로 환경관련 연구개발과 설비보완

및 개체에 300억원을 투자하고 환경관리 규정과 환경업무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환경관리기능을 대폭 강화 할 방침이다.

또 환경제품의 개발과 생산 유통 폐기 등 각 단계별로 환경중시 및 자원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해 장기적으로 국제환경 경영규격인 ISO-14000에 적합한 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품자동화 전산시스템 구축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는 물류자동출하 전산시스템은 영업 및 유통망의 제품 배송요청에 대한 자동출하 처리 및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배송경로결정, 차량배치 등 배치 지시 업무와 배송용역비 정산업무를 완전 전산화하여 물류센터 업무를 50%이상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 전산시스템은 물류센터별 분산처리 개념을 도입, 기존 호스트 시스템의 비 가동시 발생하는 배송업무의 중단을 극소화 하였으며 각 물류센터별 배송지역 대리점 위치, 배송경로 등 배송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함으로써 향후 물류센터의 이전 및 각종 변동 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우전자는 자동배차 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기존에 물류출하 업무과정이 6공정 13과정을 거쳤던 것이 4공정 5과정으로 출



하업무 과정이 축소되었으며 또 1일 3시간이상 걸리던 배송 Route 및 차량배차 업무가 적정 차량 적재를 유지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제품을 적기에 공급, 대 고객 서비스 향상을 꾀하게 되었다.

대우전자가 대우정보 시스템과 공동으로 지난해 4월부터 약 6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개발에 성공한 물류 자동출하 시스템은 각 물류센타의 제품출하 관련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되어 출하 업무 효율화를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 가능하게 되었고 계획 배송체계를 완벽하게 실시하게 됨으로써 보다 나은 영업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천진 카오디오 공장 신축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는 중국 천진에 600만 불을 투자, 연산 100만대 규모의 세계 최대 카오디오 공장을 건설한다.

단일 카오디오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대우전자 신축 천진 카오디오공장은 올7월

에 완공될 예정인데, 2,000년까지 매출액 3억 5,000만불을 목표로 연간 생산규모를 가동 첫해 완제품 100만대, 데크 50만대에서 2,000년에는 완제품 200만대, 데크 300만대로 늘릴 계획이며 현지 채용 인력도 첫해 400여명에서 2,000년 1,000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우전자는 천진에 유럽이나 미주시장 등을 겨냥한 해외생산 기지로서 '93년 300만불을 단독 투자, 부지와 건물을 임대해 설립 연산 60만대 규모의 기존 카오디오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수출 호조로 생산시설 확대가 불가피한데다 핵심부품인 데크의 자체 생산시설을 갖춰 원활한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장기적인 생산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공장을 설립키로 했다는 것이다.

대우전자는 이 신축되는 자가 공장을 향후 2천년까지 세계최고 품질의 고급 카오디오 공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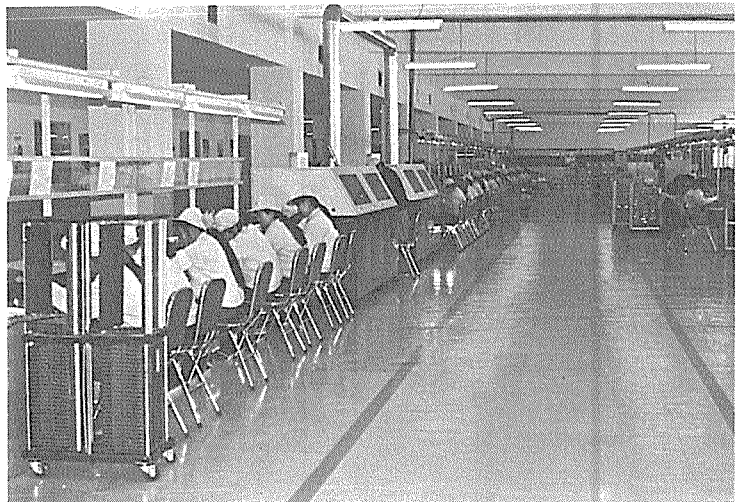
대우전자는 또 향후 이 공장이 들어서는 부지에 청소기, 전자렌지, VCR 등 가전제품과 관련 핵심부품공장을 설립, 종합가전단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업무용 무전기 개발 맥스전자(주)

맥스전자(대표 : 윤원영)는 업무용 무전기 2개 모델(모델명 : DP시리즈, DSP-0410AN)을 개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DP-시리즈는 두께 27mm, 무게 365g의 초경량 무전기로 32개 채널의 사용이 가능한 VHF 및 UHF 겸용 제품이며 DSP-0410AN은 99개의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VHF전용 제품으로 무게는 500g이다.

600MAH의 초대용량 충전바테리의 채용으로 2시간 급속충전



및 완속충전이 가능한 DSP-0410AN은 최대 4·8W의 출력으로 송·수신 반경을 넓힐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2W의 출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첨단의료기기 4개사 합작 (주)메디슨

초음파진단기기 전문업체 메디슨(대표 : 이민화)이 4개 중소기업체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 첨단 전자의료기기 개발에 본격 나선다.

메디슨은 한국멀티미디어통신, 피엠에스, 태하메카트로닉스, 비트 컴퓨터와 합작조인식을 가졌다.

4개사에 대한 합작투자 금액은 총 13억원이다.

이번 합작투자는 다양한 전자 기술을 흡수해 경쟁력 있는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로서 국내 의료기분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메디슨은 이같은 합작투자회사를 올해 10개 정도로 늘릴 방침이다.

비디오 오버레이 기능의 ASIC(주문형반도체) 개발 (주)삼보컴퓨터

(주)삼보컴퓨터(대표 : 이정식)는 PC-TV 시대를 앞당기는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 주문형반도체)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 ASIC는 비디오 오버레이(Video Over-layer)기능을 갖는데 이 chip을 이용하여 PC-TV 기능을 구현하면 Windows상에서 다른 작업을 하면서 TV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화면에서의 TV 스크린 크기는 16×16 (Windows 아이콘크기)에서 640×480(Full screen)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대로 구현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동영상 화면을 연속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한다.

ASIC은 동사가 2년간의 개발기간을 들인 결과 기존의 제품보다 저가격이면서 보다 향상된 기능을 구현할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PC-TV시대를 더욱 앞당길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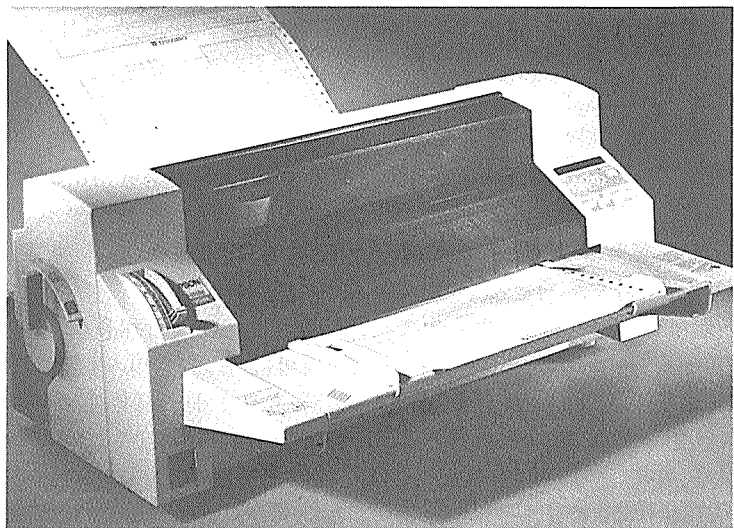
존의 PC용 TV 오버레이보드에 사용된 수입Chip을 대체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까지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Chip은 45,000게이트, 160Pin PQFP로 0.8미크론 테크놀로지를 사용했으며, VESA버스와 ISA버스를 지원한다.

칼라도트 프린터 "LQ-3000H" 발표 (주)삼보컴퓨터

(주)삼보컴퓨터(대표 : 이정식)에서 136컬럼까지 지원하며 444cps(Character Per Second)의 고속 인쇄를 보이는 칼라도트프린터 'LQ-3000H'를 새로이 발표했다.

본 칼라 도트 프린터는 수평방식(Flat Bed)방식으로 용지를 공급하여 각종 레이블 출력에 유용하며 영문 문서 출력에 있어



444cps로 최적의 Performance를 보이는 고속 OA용 프린터이다.

빨강, 노랑, 파랑의 3색 칼라 리본과 함께 흑색 리본을 동시에 지원하고 칼라의 경우 3색의 조합으로 7가지 색깔을 낼 수 있다. 2억번의 스트로크(Stroke)로 제품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최대 입력 버퍼가 128KB로 다량의 텍스트 문서 출력을 무리없이 수행한다.

도트 프린터는 800,000대로 예상되는 프린터 전체시장의 약 15%인 120,000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표 참조), 삼보컴퓨터의 'LQ-3000'의 경우 고속 출력을 원하는 OA시장의 수요에 따라 월 평균 500대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LQ-3000H"의 가격은 139만5천원(VAT별도)으로 2월부터 시중에 판매한다.

DCC테크 국산화 (주)삼성전자

삼성전기(대표: 이형도)가 필립스·마쓰시타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미니디스크(MD)와 더불어 차세대 오디오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콤팩트 카세트(DCC)용 테크 메커니즘을 개발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1월부터 총 8억원을 투입해 최근 자동차용 DCC테크를 개발, 24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이의 상품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 제품을 오는 '98년 생산예정인 삼성 승용차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최고급 승용차에의 DCC채용이 도입기에 접어든 것을 감안, 세계 유수의 카오디오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DCC테크는 DCC플레이어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카세트 테크와 달리 디지털로 음성신호를 녹음·재생, 음질을 1백5dB까지 향상시켜 사람의 청각에 적합한 음질을 재생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이다.

TFT LCD공장 준공 (주)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경기도 기흥에 차세대 표시소자인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소자(TFT LCD)공장을 완공, 김광호 부회장과 임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모두 3천억원의 자금을 투자, 착공 1년여만에 준공된 이공장은 주력품목인 노트북용 10.4인치 패널을 최종 생산품 기준으로 월 8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TFT LCD는 휴대용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기 및 벽걸이TV 등의 표시장치로 사용되는 차세대 제품으로 전자제품의 경박단소화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일본

업체만이 생산중에 있고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DSP칩 감열 팩스 시판 (주)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감열팩스로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DSP)칩을 탑재한 「스태프 11」을 개발, 시판에 나선다고 밝혔다.

「스태프 11」은 팩스밀리에 DSP칩을 탑재해 기본적인 문서 전송기능이외에 카세트 테이프 없이도 자동응답, 메시지 녹음, 롬 모니터 기능 등을 수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제품은 또 스피커폰 기능을 채택, 두손을 모두 쓰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다.

「스태프 11」은 이밖에 세계 주요도시의 현지시간을 LCD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증권·입찰·학습 정보 등을 각종 팩스정보를 원터치로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CD롬 드라이브 사업 강화 (주)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CD롬 드라이브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2개라인에서 월4만대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수원공장의 CD롬 드라이브

생산설비를 올해 하반기까지 4개 라인 월8만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지난 1월 1,000여대의 시제품을 출시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출하량을 월2천~3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6월경에는 생산설비를 전면 가동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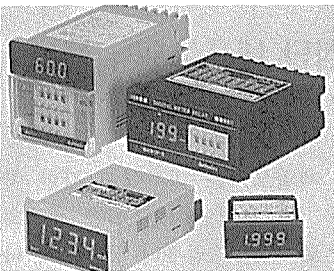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재 출하하고 있는 확장 IDE방식의 2배속 제품을 모두 4배속으로 전환, 국내에서 4배속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디지털 스캘링 메타 시판 (주)오토닉스

(주)오토닉스(대표 : 박환기)는 최대 표시가 1999 Hold 기능이 부여된 디지털 스캘링 메타를 시판한다.

7 Segment LED 리스플레이, Din 규격에 의한 Case Size, Input 사양에 따른 선현표시 기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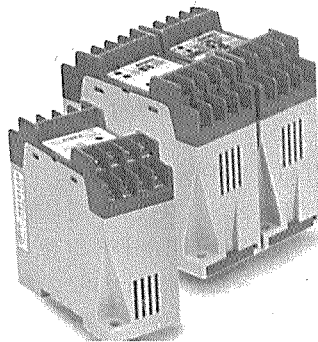
지시전용이며 1단 설정 출력용과 2단 설정 출력용으로 구분되



있으며 압력, 유량, 온도, 습도 등의 Converter 출력을 표시할 수 있다.

센서콘트롤러 시판 (주)오토닉스

오토닉스가 시판하는 센서콘트롤러의 특징 및 용도는 소형화 고품질, Free 입력전원, 타이머 기능 내장, 유접점, 무접점 입력, DIN 레일 취부 및 레일이 없어도 취부가 가능하며 또한 DIP 스위치에 의한 기능 선택, 고속 입



력 응답 등의 특징을 보여준다.

16M 싱크로너스 D램 개발 LG반도체

LG반도체(대표 : 문정환)은 최근 16M SDRAM(Synchronou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개발에 성공하였다.

Data의 최대 전송 처리 속도가 83Mega byte/sec인 이 제품

은 칩안에 2개의 독립적인 D램 반도체를 삽입해 예비 충전시간을 없애고 처리시간을 단축해 고속효과를 2배로 낼 수 있는 듀얼뱅크 구조로 되어 있으며 Full Page(512개의 Data를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기능이 있어 고속 Data를 처리하기 위한 Graphic Memory, 고속용 Desk top PC, Work Station의 Main Memory로 쓰일 첨단 제품이다.

LVTTL(Low Voltage Transister Logic) Interface 설계로 3.3V의 저전압에서도 Chip 간의 전압이나 속도 등이 원활히 작동하는 절전형 제품이며 Data의 대용량, 고속 처리에 적당한 DRAM 일종의 차세대 반도체로서 2000년대에 DRAM 전체 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할 고객 만족형 고부가가치의 제품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외부 신호에 동기되어 동작함으로써 83MHz이상의 고속 동작이 가능하고 OPU클럭에 연속적으로 Data호출 명령을 줄수 있어 고객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사양이다.

LG반도체는 개발에 완료된 이 제품을 올 상반기부터 본격 생산할 예정이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LG전자

LG전자(대표 이현조)가 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지역과 화상을

통해 업무회의를 할 수 있는 글로벌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정보교환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94년 6월부터 총25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이번에 구축한 글로벌 화상회의 시스템은 본사를 비롯 구미, 평택, 청주, 창원공장 등 9개 사업장과 미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해외 7개 지사를 한개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LG전자는 이 시스템의 구축을 계기로 그동안 국내를 비롯 일본, 미국 등 일부지역에만 한정되어 온 화상회의를 전세계의 각지점으로 확대, 각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교환할 수 있고 연간 해외 출장경비의 20%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와이드 TV 2종 시판 LG전자

LG전자는 36인치 및 28인치 와이드TV 2기종을 개발, 오는 5월부터 각각 시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브라운관 핵심부품인 튜브를 전문업체인 한국전기 초자와 공동개발, 28인치 제품의 경우 기존 브라운관보다 2배정도 평평한 「슈퍼플랫」을 채용해 화면이 찌그러지는 현상을 없앴다고 밝혔다.

또 편향코일 대구경 전자총 형광체 등 주요 부품을 신규개발해 장착, 일반 TV용으로 전송된 화

면을 와이드TV용으로 전환하는 zoom기능을 첨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면형태를 기존 TV와 같이 4대3(가로:세로)의 비율로 조절할 수도 있으며 주변부를 확대하는 스펙터클 기능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36인치 제품은 포항공대와 산학협동으로 개발한 잔상제거용 회로를 내장, 화면점침 현상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키폰 시스템 터키에 수출 LG전자

LG전자가 터키 지역에 하이브리드 키폰 시스템을 본격 수출한다.

LG전자(대표 이현조)는 최근 터키의 통신기기 판매 전문업체인 카렐(KAREL)사와 연간 3백만달러 규모의 하이브리드 키폰 시스템을 수출하는 내용의 터키 지역 키폰판매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터키지역에 LG전자의 키폰 시스템을 공급하는 카렐사는 터키 전역에 5백여개의 통신기기 전문 대리점망을 가지고 있는 통신기기 판매 전문업체다.

전전자 교환기 100만 회선 수출 LG 정보통신

LG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지난해 말 중국 현지 합작법인인 화금통신유한설비공사에 대용량 전전자 교환기 STAREX-TX1 4,500회선을 선적함으로써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전전자 교환기 수출 물량이 총 100만 회선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가의 기간통신망을 구성하는 중추장비인 전전자 교환기 200만 회선 수출 달성으로 LG정보통신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교환기 전문업체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LG정보통신은 이와 관련, 여의도 LG트윈타워빌딩 지하대강당에서 정장호 사장, 사내의 수출 유공자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전자 교환기 수출 100만 회선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LG정보통신의 교환기 100만 회선 수출은 지난 '91년 3월 중용량 교환기 STAREX-TD를 국내 업계 처음으로 베트남에 수출한 지 만 4년만의 성과다.

교환기 100만 회선은 재개발 국가 25개국의 총전화 회선의 합계와 맞먹는 물량이며, 우리나라가 교환기를 최초로 도입한 1935년부터 약 40년간 공급한 회선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첨단 내후성수지 생산 제일모직

제일모직은 내후성이 강한 특수 합성수지인 AECS를 세계최초로 개발, 3월부터 상품화에 나

선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의 화성연구소가 개발한 AECS는 온도 및 습도변화에 견디는 내후성이 같은 계열의 일반 범용 수지(ABS)보다 4배 정도 강한 침단수지로 차량이나 선박의 외장용 제품과 토목자재 및 옥외용 전자 제품 등의 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이회사는 지난 '93년부터 2년간 모두 4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이 새 수지를 개발했으며 현재 미국과 일본에 특허를 출원했다.

3월부터 「스타렉스 X-시리즈」라는 브랜드로 내수시장에 선보일 이 내후성 수지의 가격은 일반 범용수지보다 약 15%정도 높게 책정될 예정이다.

제일모직은 기존의 수지 생산라인을 이용해 AECS를 연산 1천5백t까지 생산할 수 있으며 금년에 내수시장을 구축한 후 내년부터 미국과 일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음성메시지 기능 감열

FAX 시판

코리아 제록스

코리아제록스(대표 : 문대원)는 음성메시지 기능을 채택한 감열팩시밀리 「TC(텔리코피어) 360」의 시판에 나섰다 밝혔다.

코리아제록스가 시판하는 「TC 360」은 전화와 팩스를 자동판별하고 음성메시지 기능을 채택, 수신자 부재시에도 육성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남길 수 있다.

「TC 360」은 또 B4크기 팩시밀리로 도면이나 대형 원고 송수신시 축소·확대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1백m기록지를 사용, 기록지를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된다.

이 제품은 이와함께 1M메모리를 탑재, 기록지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원고를 A4용지 기준 최대 53장까지 기억할 수 있다.

HDD 사업 본격화 태일정밀

태일정밀(대표 : 정강환)이 미국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개발전문업체인 바이서치사와 협력, HDD사업을 본격화 한다.

태일정밀은 최근 바이서치사와 공동개발한 520MB급 HDD를 중국 현지 공장에서 본격 생산, 중국시장 및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한편 수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태일정밀은 생산장비를 비롯한 부대시설 비용으로 20억원을 투자, 최근 완공된 중국 현지공장에 월평균 최대 5만대의 HDD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설치하고 6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HDD제조에 필요한 클린룸은 HDD용 헤드 제조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이용하고 자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HDD용 헤드 및 디스크를 사용, 생산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태일정밀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하고 제품도 그동안 HDD용 헤드 및 디스크를 개발하면서 소량 생산해온 260MB급과 이번에 개발한 520MB급 2종밖에 없어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안에 1GB급 제품도 개발하는 등 제품군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면서 기술을 습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칩 부품 사업 강화 한룩전자

한룩전자(대표 : 정세능)가 칩 부품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종합저항기 전문생산업체인 한룩전자는 올해 지난해 대비 20% 늘어난 200억원의 매출목표를 확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확대 차원에서 칩저항기의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한룩전자는 설비투자가 완료돼 본격 생산이 이뤄지는 하반기부터는 칩저항기의 생산량이 현행 월 1억7천만개보다 76% 늘어난 3억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잉크젯 프린터 시판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국내 처음으로 A2용지 크기까지 인쇄할 수 있는 잉크젯 프린터(모델명 제노비아 프로)를 개발, 이달

국·내·업·계·소·식

말부터 본격시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노비아 프로는 32비트 리스크 CPU를 탑재, 기존 16비트에 비해 인쇄속도가 2배이상 향상됐고 프린터 작동시

소음을 45데시벨(dB)로 줄였으며 360CPS(초당 인쇄 문자수) 수준의 고속인쇄가 가능하다.

특히 엡서크기에서부터 기존 A3의 2배인 A2용지까지 인쇄가 가능하고 메모리버퍼의 저장용량

이 340KB로 A4용지 기준으로 120장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

그동안 A2용지 인쇄는 레이저 프린터나 플로터를 사용해야 가능했다.

회원사 창립일을 축하합니다.

회사명	창립연월일	회사명	창립연월일
국 제 전 자 공 업 (주)	'71. 3. 1	삼 화 기 연 (주)	'81. 3. 10
삼 성 물 산 (주)	'38. 3. 1	두 일 산 업 (주)	'79. 3. 12
쌍 방 울 전 자 (주)	'79. 3. 1	(주) 베 가 인 터 내 쇼 날	'92. 3. 12
영 진 상 역 (주)	'79. 3. 1	(주) 명 성 제 작 소	'70. 3. 13
창 성 기 업	'85. 3. 1	정 품 물 산 (주)	'65. 3. 15
케 이 엔 제 이 전 자 (주)	'78. 3. 1	대 룬 전 자 (주)	'90. 3. 15
한 국 통 신 (주)	'80. 3. 1	건 아 기 전 (주)	'88. 3. 15
대 성 전 기 공 업 (주)	'73. 3. 2	동 양 텔 레 콤 (주)	'69. 3. 16
(주) 우 성 엔 지 니 어 링	'88. 3. 2	경 기 전 자 공 업 (주)	'81. 3. 18
태 경 물 산	'88. 3. 2	한 국 유 니 시 스 (주)	'71. 3. 18
한 광 통 신 (주)	'82. 3. 2	대 진 전 기 통 신 (주)	'82. 3. 19
(주) 한 국 트 프 론	'86. 3. 2	(주) 정 엔 지 니 어 링	'79. 3. 19
극 동 음 향 (주)	'77. 3. 3	(주) 한 싸 운 드	'84. 3. 20
(주) 삼 승	'78. 3. 3	(주) 모 토 로 라 코 리 아	'67. 3. 21
(주) 티 시 아 이	'89. 3. 4	(주) 대 우	'67. 3. 22
보 문 전 자 (주)	'83. 3. 5	(주) 세 모	'79. 3. 22
진 세 정 밀 (주)	'87. 3. 5	(주) 대 신 전 자 통 신	'81. 3. 24
(주) 한 통 엔 지 니 어 링	'69. 3. 5	(주) 한 독	'65. 3. 25
(주) 인 켈	'70. 3. 7	해 태 전 자 (주)	'78. 3. 25
(주) 코 로 나 전 자	'82. 3. 8	(주) 시 공 테 크	'85. 3. 25
(주) 태 립 전 자	'74. 3. 8	(주) 성 요 사	'69. 3. 26
택 산 전 자 (주)	'90. 3. 9	양 제 시 스 템 (주)	'90. 3. 26
대 진 정 밀 산 업 (주)	'70. 3. 10	항 주 산 업 (주)	'72. 3. 26
(주) 명 코 퍼 레 이 션	'81. 3. 10	아 남 산 업 (주)	'56. 3. 26
삼 아 전 공 (주)	'82. 3. 10	신 한 전 자 (주)	'73. 3. 29
(주) 한 국 표 준 기 기	'86. 3. 10	(주) 유 유	'77. 3. 31
유 니 온 컴 퓨 터 (주)	'87. 3. 10	(주) 진 성 전 자	'84. 3. 31
가 야 전 자 (주)	'88. 3. 10		